

## 프랑스 왕실 백합 문장(紋章)의 역사와 의미 연구\*

고 봉 만

(충북대학교 프랑스 언어문화학과 교수)

### ◆ 국문초록

백합(fleur-de-lis)은 12세기 중엽 프랑스 문장으로 채택된 후 오랫동안 프랑스 왕실을 상징하고 프랑스와 동일시되었다. 파리와 리옹 등 도시 문장과 관공서 상징에 지금도 나타나며, 디트로이트나 뉴올리언스와 같은 미국 도시 깃발에도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합에 관한 문헌은 자료로 잘 축적돼 있지 않고 관련 연구 또한 미미한 실정이다. 프랑스 혁명기에 백합이 왕정의 표상으로 인식되고 파괴되면서 백합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가 된 탓에 학문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본 연구는 공정하게 해석될 수 없다는 이유로 주목받지 못한 프랑스 문장으로서 백합을 역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그 학술적 가치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백합이 태동한 배경과 청색을 바탕으로 왕실 문장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살펴 보면서 유럽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프랑스만의 문화적 특징을 지니게 된 이력과 그 의미를 궁구한다. 문장은 당대 사회를 읽을 수 있는 문화적 코드를 담고 있기에 프랑스 문장으로서 백합을 탐구하는 일은 역사 연구의 필수 과제이자 오늘날 프랑스를 만든 문화의 원형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작업이다.

이 논문은 프랑스 백합 문장이 정확히 언제 어떤 이유로 프랑스의 공식 엠블럼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그 모양과 의미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왕의 인장과 당대의 동전, 중세의 역사서에 의거해 역사적인 맥락에서 고찰한다. 그리고 12세기 서유럽에서 일어난 마리아 숭배가 서방 기독교에서 성모의 위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프랑스 왕실 백합 문장의 색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고딕 대성당의 파사드와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의 출현을 기점으로 프랑스에서 문장이 쇠퇴일로로 걷게 된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3068099).

역사적 배경을 추적하면서 왜 오늘날에도 문장 연구가 중요하며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연구한다.

주제어 : 프랑스 왕실 문장, 백합, 마리아 숭배, 동전과 인장, 고딕 성당, 청색, 스테인드 글라스

## I. 서론

본 연구는 중세 프랑스 왕실 백합 문장의 기원과 전개 과정을 살피고 시민혁명을 기점으로 쇠퇴하게 된 역사를 점검하면서 오늘날에도 학술적 주제로 문장 연구가 필요한 이유와 지향해야 할 바를 살펴본다. 기독교에서 차지하는 의미나 프랑스 왕실 문양이라는 위상을 생각해 보면 백합 관련 연구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정은 예상과 전혀 다르다. 프랑스에서조차 백합 문양에 관한 문헌과 연구는 양적인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고 질적인 면에서도 그 내용이 빈곤하다. 종교, 정치,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백합 문양이 학술적 주제로 부상하지 못한 것은 프랑스의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백합의 상징성 연구가 결코 중립적 주제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백합은 공화국의 신념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중세 천 년을 지속해온 국가 상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다. 절대 왕정의 사회·정치·사법·종교적 구조와 절연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수행된 연구에서도 백합은 이념에 따라 표류하거나 일부 과장되고 왜곡되어 연구자들로부터 불신을 받았다. 공화국이 표방하는 가치와 모순된다고 여겨져 문장학자들마저도 백합 연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프랑스 왕실 문장으로서 백합의 이미지와 상징 연구 작업은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을 해야만 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중세사 연구가 파스투로(Michel Pastoureau)가 문화적 코드로서 문장의 상징과 색채를 연구함으로써 이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백합 문장을 연구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 본고는 파스투로와 그의 뒤를 잇는 중세 연구가들의 저작에 기초해 프랑스 백합 문장의 역사를 살펴보

고 그 의미를 조명하고자 한다. 먼저 백합이 정확히 언제 어떤 이유로 프랑스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되었는지 왕의 인장과 동전, 『프랑스 대연대기』와 같은 중세 역사서를 준거로 논증한다. 그리고 12세기 서유럽에서 일어난 마리아 숭배가 서방 기독교에서 성모의 위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왕실 백합 문장의 모양과 색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당시 건축된 대성당의 파사드와 스테인드글라스, 등을 통해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앙시앵 레짐의 출현과 프랑스혁명을 기점으로 프랑스에서 문장이 쇠퇴일로를 걷게 된 역사적 배경을 추적하면서 거의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문장이 사라진 오늘날에도 문장 연구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고 21세기 문장 연구의 향방에 대해서 고민해보고자 한다.

## II. 백합 문장의 기원과 중세 시대 마리아 공경

프랑스 백합 문장의 기원을 정확히 밝히는 일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백합꽃 문양은 고대부터 전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메소포타미아의 원기둥이나 이집트의 저부조(底浮彫), 크레타와 미케네의 벽화(‘백합 관을 쓴 젊은이’, ‘봄의 프레스코’)뿐만 아니라, 갈리아 지방의 동전, 실크로드의 요충지였던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직물, 아메리카 인디언의 옷이나 일본 문장(紋章) 등 백합꽃 문양은 실로 다양한 형태로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나타난다.<sup>1)</sup>

하지만 백합이 상징하는 바는 시대와 지역, 문화권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백합은 ‘경건’과 ‘순결’, ‘무구’와 같은 종교적 상징으로 자리매김 되었지만 고대 시대 백합은 꽃 모양 때문에 ‘풍요’와 ‘에로틱한 사랑’과 같은 세속적 의미를 내포했다. 이집트와 레반트 지역에서는 ‘다산성’과 결부되었고, 비잔틴에서는 ‘변영’을 상징하는 꽃으로 인식되었다.<sup>2)</sup> 이후 백합은 생명과 풍요 외에도 순수와 순결의 의미를 덧입게 되었

1) Salvatore Di Palma, *L'Histoire des marques depuis l'antiquité jusqu'au moyen âge*, 2014, p. 24.

2) Michel Pastoureau, *Traité d'héraldique*, Paris, Picard, 2008, p. 160.

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는 권력과 통치권도 표상하게 되었다. ‘순결’, ‘풍요’, ‘통치권’이라는 백합의 세 가지 상징적 의미는 시간적 격차를 두고 중세 프랑스 백합 문양과 문장에서 하나로 결합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프랑스 왕실 백합 문장의 기원이 고대 백합 문양의 상징적 의미와 별개가 아니며, 오히려 그 의미 변천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중세 서유럽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한 형태의 백합꽃 문양은 기원전 3천 년경 시리아에서 만들어진 인장과 저부조에서도 발견된다. 삼중관(三重冠), 목걸이, 지휘봉을 장식하는 데 백합이 장식된 것을 볼 때 고대 시리아에서도 백합은 왕의 표장(標章)과 관련되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세 유럽과 비슷한 백합꽃 문양이 고대 그리스나 로마 제국, 갈리아 의 동전에도 나타난다. 특히 갈리아의 동전에 새겨진 백합은 중세 유럽 문장에 나타나는 백합꽃 문양과 아주 흡사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프랑스 중남부에 위치한 아르베르느(지금의 오베르뉴(Auvergne))에 거주하던 갈리아 부족이 기원전 1세기 경 사용한 ‘스타테르’라는 화폐 뒷면에는 백합 문장의 전 단계라 할 만한 백합꽃 형상이 등장하기도 한다. 관련 자료가 거의 없어 이것이 단순 장식이었는지 권력이나 재력(財力)을 상징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프랑스 백합 문장의 기원을 밝히는 귀한 동전임에는 틀림없다.

현존 자료를 통해 그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백합 문양은 왕홀이나 왕관, 왕의 망토, 장신구 등 왕의 권리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쓰인 것이다. 8세기 말부터 9세기 말 프랑크 왕국의 카롤링거 왕조 치세 기간에 등장한 다양한 백합꽃 문양은 왕의 권력을 상징했다. 서유럽을 통일한 샤를마뉴 대제(Charlemagne, Charles the Great 768~814)는 백합을 귀하게 여겨 영주권에 관한 문헌인 『도시 법령집 (Capitulare De villis)』 맨 앞에 백합을 제시하였다.<sup>3)</sup> 800년 경 포고된 이 문헌은 왕령지 관리인들이 왕의 영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글과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한 칙령이다. 그림1)에 제시된 루브르 박물관의 ‘샤를마뉴 또는 대머리 왕 샤를의 기마상’(Statuette équestre)에서 왕은 세 잎 백합꽃 네 송이를 왕관 둘레에 꽂고, 백합 문양 장식이 선

3) Élisabeth Magnou-Nortier, “Capitulaire De Villis et curtis imperialibus: texte, traduction et commentaire”, *Revue historique*, no 607, juillet-septembre 1998, pp. 643-690.

명한 신발을 신고 있다.

백합꽃 문양에 왕의 권력과 함께 종교적 의미가 더해지기 시작한 것은 서프랑크 왕이자 신성로마제국 황제로 등극한 샤를 2세(Charles II le Chauve, 823~877) 때였다. 샤를 2세의 스승이자 신학자였던 슈트라보(Walafid Strabo)는 백합을 왕실 정원의 대표 식물로 공표한다.<sup>4)</sup> 교회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왕의 권위를 세우고자 했던 카롤링거 왕들은 기독교가 성스러운 꽃으로 인정한 백합을 왕의 정원 맨 앞줄에 심어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다. 백합이 종교적 상징을 덧입게 되자 왕홀이나 왕관의 백합 꽃잎도 여섯 개에서 세 개로 변모해, 삼위일체의 종교적 의미를 담게 된다.



(그림1) 9세기에 제작된 샤를마뉴대제 기마상



(그림2) 966년 잉글랜드 에드거 왕의 초상

카롤링거 왕조의 백합 사랑은 유럽 왕실로 전파되는데, 특히 잉글랜드 왕실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림2)에서 보듯 웨섹스의 에드거(Edgar the Peaceful, 943~975)는 뉴민스터를 삼위일체, 성모 마리아, 성 베드로에게 봉헌하는 그림에서 세 송이 백합으로 장식된 왕관을 쓰고 등장한다. 이 시기 그리스도상, 성모 마리아상, 왕관 등에 나타나는 백합 꽃잎이 거의 세 잎인데 반해,

4) Laurence Moulmier, "La botanique d'Hildegarde de Bingen", *Médiévales*, Année 1989, p. 116.

에드거 왕관의 백합 꽃잎은 두 잎이라는 점은 새로운 해석을 요하는 부분이다.<sup>5)</sup>

기독교가 유럽 사회 전반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백합 문양의 종교적 의미는 강화되고,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백합의 의미를 앞 다투어 해석하게 된다. 예수의 산상설교 가운데 ‘들에 핀 흰 백합화’는 백합의 종교적 상징성을 심화시키는 은유로 부각된다. 또한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장미, 골짜기의 백합화보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라는 아가서 구절 역시 성 히에로니무스(Saint Jérôme, 347~420)로부터 성 베르나르(Bernard de Clairvaux, 1090~1153)에 이르기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궁구한 심원한 주제가 된다.

이러한 기독교 교부들과 신학자들의 해석에 힘입어 백합의 종교적 의미는 변화되고 심화된다. 초기 기독교 도상에서 백합은 예수와 하느님과 연관된 상징이었다. 예수는 백합이나 백합 문양 한가운데 형상화되었고, 삼위일체 하느님은 세 송이 백합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10세기에 들어서면 백합은 예수와 하느님보다는 성모 마리아와 더 깊은 연관성을 맺게 된다. 그리스도와 삼위일체보다는 “순수(pureté)와 순결(virginité), 동정(chasteté)의 상징”으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중세 미술 사학자 김슨(Clare Gibson)은 백합이 마리아와 관련되면서 중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와 느낌을 심어주었는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한다.

하얀 백합은 마리아의 아름다움과 흠 없는 순수함을 나타내며, 줄기가 꽃병에 꽂혀 있는 모습일 때에는 마리아의 축복받은 자궁을 의미한다. 수태고지 장면에서 긴 줄기 백합 한 송이는 나이 어린 동정녀 마리아가 곧 자식을 낳을 것임을 알리는 대천사 가브리엘이 가져온 지팡이로 묘사된다.<sup>6)</sup>

안쪽 세 개와 바깥 쪽 세 개 꽃잎이 엇갈리며 포개진 백합의 실제 모습은 중세 사람들에게 별을 떠올리게 했다. ‘별’은 성모를 지칭하는 비유이기도

5) Alexandre-Y. Haran, *Le lys et le globe : messianisme, dynastique et rêve impérial en France aux XVIe et XVIIe siècles*, Champ Vallon Editions, 2000, p. 121.

6) 클레어 김슨, 『상징, 알면 보인다』, 정아름 역, 비즈앤비즈, 2010, 183쪽.

했기 때문에 대중들도 백합을 보면서 성모 마리아를 연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여기서 “별이 영원히 빛을 발하듯, 마리아도 자신의 처녀성을 유지한 채 편안하게 예수를 잉태했다”는 신학적 해석도 자연스럽게 파생된다.<sup>7)</sup> 파랑색 바탕에 점점이 박힌 프랑스 초기 왕실의 황금색 백합 문장에서 이들은 별 총총한 밤하늘을 보았다. 지상에 핀 백합화의 뿌리는 별로 표상되는 성모의 신비, 즉, 우주적 기원과 맞닿아 있음을 백합 문장은 초기부터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10세기에 시작된 마리아 숭배는 서유럽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새로운 것이었다. 3세기부터 기도문에서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부르고 공경한 것은 동방 교회의 전통이었다. 안티오키아의 주교 요한은 마리아를 ‘테오토코스’(Theotokos, 하느님을 낳은 자)로 부르도록 명하고 마리아의 원죄 없음을 강조했다. 원죄 없는 인간으로서 마리아의 존재 위상은 신의 아들이면서 인간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그것만큼이나 신비롭고 거룩한 것이었다. 동방 교회의 이러한 마리아 공경은 십자군 전쟁의 영향으로 서방 기독교 세계에 전파되기 시작해, 12세기 중반에는 서구 유럽 전역에 자리 잡게 된다.

성모 마리아의 새로워진 위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신학적 논거 또한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했다. 프랑스는 이 연구를 주도했고, 그 중심에는 베네딕트회에 입교해 시도 교단을 개혁한 성 베르나르가 있었다. 그의 주요 치적은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는 마리아를 통해 전해진다는 마리아의 중재 역할에 주목해, 성경에 나오는 신비하고 우아한 상징과 마리아를 연관지어” 해석한 것이다.<sup>8)</sup> 베르나르 역시 마리아를 ‘바다의 별’에 빛댄 성경 구절에 기초해, 별이 자신을 해치지 않고 빛을 보내듯 마리아가 자신을 해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지상에 보냈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하기 전이나 후, 심지어 예수를 잉태하는 순간에도 처녀성을 유지했다는 베르나르의 신학적 고찰은 마리아를 원죄 없는 인간으로 승격시켜 서구 유럽 기독교 사회에 전례가 없던 마리아 공경 현상을 이끌어냈다.

마리아의 순수성, 처녀성, 무염시태(無染始胎), 하느님의 부름을 받은 승천이라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면서 성모신학이 번성하였고, 이는 전례와

7) 배철현, 『인간의 위대한 질문』, 21세기북스, 2015, 291쪽.

8) 임영방, 『중세 미술과 도상』,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567쪽

성당 건축에도 반영되었다. 수많은 성당이 마리아에게 봉헌되고, 성모를 기리는 축일, 성모에게 바치는 기도문과 성가가 무수히 생겨났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성당을 장식한 도상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형상과 역할이다. 그림3)에 제시된 12세기경 건축된 파리 노트르담 성당의 성녀 안나의 문(Portail Sainte-Anne)의 마리아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상이다. 머리에 왕관을 쓰고 손에 왕홀을 들고 있으며 아기 예수를 안은 채 여왕처럼 왕좌에 앉아 있는 마리아의 모습에는 군왕의 위엄이 서려있다. 그림4)에 제시된 ‘아름다운 색유리창의 성모 마리아(Notre-Dame de la Belle-Verrière)’라 불리는 샤르트르 대성당의 “성모자상” 마리아 역시 근엄한 여왕의 기품을 지니고 있다. 초기 기독교 시대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부속물처럼 취급되었지만 12세기에 오면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오히려 어머니의 부속물처럼 여겨지는 시각의 역전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림3) 노트르담 성당 안나의 문을 장식한 마리아



(그림4) 샤르트르 대성당의 성모자상

당시의 동전과 교회 인장은 서유럽 기독교 사회에서 백합이 성모 마리아의 상징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소상하게 증명한다. 11세기에서 12세기 사이 주조된 동전과 12세기 말부터 13세기 초에 제작된 교회 인장은 거의 대부분 성모와 백합을 동반한다. 성모에게 봉헌된 성당의 건축비 마련을 위해 발행된 이 동전에는 백합꽃이 새겨졌고, 교회 인장이나 세밀화, 벽화에는 백합을

들고 있거나 백합에 둘러싸인 성모 마리아 이미지가 대거 등장한다. 1146년부터 사용된 노트르담 대성당(Notre-Dame de Paris)의 참사회 인장, 1154년 누아용 대성당(Notre-Dame de Noyon)과 1181년 라옹 대성당(Notre-Dame de Laon) 참사회 인장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프랑스가 마리아 숭배의 중심에 있던 12세기는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대신하는 수단으로 문장(紋章)이라는 새로운 시각 매체가 서유럽 전역에 등장하던 때이기도 했다. 샤를마뉴대제 때부터 백합을 왕권의 상징으로 써왔던 프랑스도 자연스럽게 백합을 왕실 문장으로 채택한다. 하지만 속세의 권력보다는 종교적 의미를 더 농후하게 내포한다는 점에서 프랑스 문장은 당대 다른 유럽 문장과는 확실하게 구별되었다. 따라서 왕위나 작위의 계승, 유산 상속 순서, 재산 소유권 등 주로 세속적 권리에 대한 주장을 담은 문장의 존재 양식과 프랑스의 그것은 상충되는 것이기도 했다. 전쟁과 전투에서 병사들의 용기와 전투력을 이끌어내는 문장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백합이라는 식물 상징은 다른 유럽 국가의 동물 문양 문장에 비해 효과적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백합을 왕실 문장으로 고수하고 여기에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

백합이 종교적 의미뿐만 아니라 프랑스 왕실과 분리될 수 없는 상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 클로비스(Clovis I, 466-511)왕의 전설이다. 13세기에 들어와 6세기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 왕을 백합에 관련시키는 의도적인 역사 다시 쓰기가 이뤄진다. 백합꽃 문양 방패를 맨 처음 왕실 상징으로 삼은 이는 클로비스라고 대중에게 전파되면서 백합은 프랑스 왕실의 상징 자리를 공고히 하게 된다. 클로비스는 아내 클로틸드(Clotilde)의 영향을 받아 496년 가톨릭으로 개종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된 인물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상상을 더하고 세밀한 묘사를 덧붙여 13세기 전설이 태동한다. 이 전설에 의하면 몽주아(Montjoie)라 불리는 탑 근처 마를리(Marly) 숲에 사는 한 은자에게 천사가 나타나 성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세 송이 백합꽃이 새겨진 방패를 건넨다. 은자는 이 방패를 신심이 깊은 클로틸드 왕비에게 전한다. 왕비는 전쟁에 나가는 클로비스 왕에게 그동안 쓰던 두꺼비 장식 방패를 버리고 천사가 하늘에서 가져온 백합꽃 문양 방패를 쓰라고 권한다. 왕비의 말을 따른 클로비스는 전쟁에 나가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고 랭스 성당에서 세례를 받는다.<sup>9)</sup> 이후 랭스 성당은 대대로 프랑스 왕들이 대관식을 치르는 장소가 된다.



(그림5) 『프랑스 대연대기』에 기록된 클로비스 세례식 삽화

13세기에 유행한 6세기 클로비스 왕 전설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꺼비에서 백합으로 왕의 상징을 바꾸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 기독교였다는 점이다. 두꺼비는 기독교에서 신과 동일시되는 빛을 싫어하는 동물로 여겨져 악마로 분류되었다.<sup>10)</sup> 클로비스가 이를 버리고 백합을 새로운 상징으로 삼았다는 것은 왕의 기독교 개종을 의미한다. 이로써 클로비스는 천상의 백합을 지상의 프랑스로 가져온 영웅적 인물로 추앙되고 역사에 기록된다. 그림5)는 14세기에 편찬된 『프랑스 대연대기(Grandes Chroniques de France)』에 등장하는 클로비스의 세례식 장면이다. 천상의 백합이 클로비스의 세례반을 지지하고 있으며 하늘에서 내려온 비둘기가 성유병(聖油瓶)을 부리에 물고 클로비스에게 성유를 따르고 있다. 이 세례식 삽화는 프랑스의 왕이 지상에서 지니는 권력은 천상에서 왔음을 암시한다.

‘천상에서 내려온 백합’ 전설은 프랑스 왕의 위치를 신의 임무를 지상에서 대리하는 자로 격상시키는 것이었다. 카페 왕조 왕들은 클로비스 전례에 따라 대관식을 치르면서 자신들은 기독교 세계의 어떤 다른 군주보다 우월하다는 자부심을 지니게 되었다.<sup>11)</sup> 백합 문장의 신성성은 발루아 왕조가 등

9) Laurent Theis, *Clovis, de l'histoire au mythe*, Bruxelles, Éditions Complexe, 1996, pp. 112~112.

10) Michel Feuillet, *Lexique des symboles chrétiens*, PUF, 2017, p. 39.

11) Michel Pastoureau, *Le roi tué par un cochon : une mort infâme aux origines des emblèmes de la France*, Seuil, 2015. p. 199. (미셸 파스투로, 『돼지에게 살해된

장한 뒤에도 지속되었고, 16세기 말까지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다. 이 과정에서 백합의 의미 또한 변하게 된다. 문장 발생 초기에서 13세기까지 백합은 믿음(Foi), 지혜(Sapience), 기사도(Chevalerie)라는 중세적 가치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성모 신학이 안착되는 14세기에 이르면 세 송이 백합은 프랑스 왕국을 수호하는 성 삼위일체를 의미하게 된다.<sup>12)</sup> 왕실 문장이 성모 마리아와 똑같은 위격을 가지게 되면서 백합 문장의 배경이 되는 색에도 마리아 신학은 영향을 미친다.

### III. 백합 문장과 왕의 청색

프랑스 왕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의미로 백합을 프랑스 문장으로 삼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학자들은 아직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 주장이 나뉘어 탄탄한 가설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확실한 증명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료가 더 발굴되어야 한다. 12세기와 13세기의 프랑스 왕실 문헌들이 이러한 가설을 보편타당하게 뒷받침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시기 활동한 저술가들의 글에서 왕실과 백합꽃 문양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는 있다. 13세기 기욤 드 디굴빌(Guillaume de Digulleville)을 포함한 몇몇 시인들의 시에서 백합은 프랑스 왕과 관련된 상징으로 나타난다.<sup>13)</sup> 그 이후에도 발루아 왕조의 정통성을 대변하거나 왕위 계승을 합법화할 목적을 지닌 글에서 프랑스 왕이 삼위일체의 가호를 받아 백합 문장을 갖게 되었다는 주장이 발견된다. 대표적 저술가로 라울 드 프레슬(Raoul de Presles, 1371~1375)을 들 수 있다. 그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신국론(De civitate Dei)』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문을 첨가했다.

---

왕) 주나미 역, 오롯, 2018, 232쪽.)

12) Emile Roy, “Philippe le Bel et la légende des trois fleurs de lis”, *Mélanges de Philologie et d’Histoire Antoine Thomas*, Slatkine Reprints, 1973, pp. 383~388.

13) Arthur Piaget, “Un poème inédit de Guillaume de Digulleville : Le Roman de la Fleur de lis”, *Romania*, 1936, pp. 317~358.

프랑스 왕은 성 삼위일체의 가호 아래 놓여 있다는 표시로 세 송이 백합꽃을 문장으로 지니고 있다. 하느님께서 천사를 시켜 유럽 기독교 세계의 첫 번째 왕인 클로비스에게 백합 문장을 보내신 것이다. 방패꼴 가문(家紋)에 사용되던 세 마리 두꺼비 문양을 지우고, 그 자리에 세 송이 백합꽃을 넣으라 하신 것이다.”<sup>14)</sup>

13세기에 전파된 클로비스 왕과 백합에 관한 전설이 마치 역사적 사실처럼 기록된 것을 볼 때 당시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호응을 얻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 전설이 태동하던 13세기 초 카페 왕조의 “금색 백합꽃이 점점이 박힌” 방패꼴 문장이 프랑스 왕실의 공식 문장이 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한다.<sup>15)</sup> 그리고 이 문장 이전에 나타난 ‘전문장(前紋章)’으로는 1137년 루이 7세(Louis le Jeune, 1120~1180)가 아키텐 공작 기욤 10세의 딸 엘레오노르와 결혼할 때 새긴 인장의 꽃을 든다.

그림6)에서 보듯 루이 7세의 인장 앞면에는 왕이 왕관을 쓰고 왕좌에 앉아 정면을 보고 있고 오른손에 꽃 모양 장식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 꽃은 왕실 문장에 사용된 백합과는 형태가 조금 다르다. 다만 왼쪽 왕홀 끝부분 마름모꼴 안에도 똑같은 꽃이 있는 것을 보면 이 꽃이 어떤 상징적 의미를 부여받고 나타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인장 뒷면을 보면 이런 추론도 힘을 잃는다. 말을 타고 싸우는 모습이 새겨진 뒷면에는 왕이 오른손으로 칼을 휘두르고, 왼손에는 방패를 쥐고 있다. 그런데 이 방패에는 아무 것도 새겨져 있지 않다. 중요한 왕의 상징이었다면 응당 여기에도 꽃이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백합을 닮은 루이 7세의 꽃이 왕의 상징으로 쓰이기는 한 것 같으나 아직 견고하고 완전한 의미를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인장은 전문장으로 취급된다.

---

14) Stéphane Marcotte, “La Cité de Dieu de saint Augustin traduite par Raoul de Presles (1371~1375)”, *Perspectives médiévales* 36, 2015, p. 982.

15) Michel Pastoureau, *op.cit.*, pp. 164~167.



(그림6) 루이 7세의 결혼을 기념해 새겨진 인장 앞과 뒤



(그림7) 필리프 2세의  
인장 앞면



(그림8) 루이 8세의  
인장

프랑스 왕실 상징에 가장 근접한 백합은 루이 7세의 아들 필리프 2세(Philippe Auguste, 1165~1223)의 인장에 나오는 백합이다. 필리프 2세는 아버지 루이 7세가 중병에 걸리자 공동 왕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1179년 11월 1일 랭스 성당에서 즉위식을 올린다. 대관식을 치른 직후 필리프 2세의 왕권을 상징하는 인장이 새겨지는데, 그림7)에서 보듯 그 모양은 루이 7세의 인장과 거의 비슷하다. 왕좌에 앉아 정면을 보고 있으며 오른손에 꽃을 쥐고 있다. 그런데 이 꽃은 루이 7세의 꽃과 달리 분명히 백합이며, 왼손에 쥐 왕홀 끝 부분 마름모꼴 안에 새겨진 꽃도 백합이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백합이 실제 프랑스 왕국의 상징이 된 시기는 필리프 2세 때가 아니라 루이 7세 재위 후반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리프 2세는 15세에 갑자기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신앙심이 돈독한 그의 아버지 루이 7세가 집권 후반에 왕실 상징으로 채택한 백합을 그대로 자신의 인장에 새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완전한 형태의 프랑스 왕실 문장은 아니다. 방패꼴에 새

겨져 있지 않으며 색채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방패꼴 문장의 형태를 취한 최초의 백합 문장은 1211년 필리프 2세가 서약한 현장에 첨부된 밀랍 인영(印璽)에 처음 등장한다. 그림8)의 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차후 루이 8세가 되는 루이 왕자(Louis le Lion, 1187~1226)가 한 손에는 백합꽃 문양이 새겨진 방패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쥐 채 말을 타고 진격하는 모습이다. 필리프 2세 재위 기간 중 제작된 것이긴 하나 이것은 그의 장남 루이 왕자의 인장이었다. 루이 왕자는 1223년 왕위에 오르고 이 인장이 새겨진 해는 1211년이다. 하지만 밀랍 인영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문양의 색깔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파랑색 바탕까지 완벽하게 갖춘 문장은 이로부터 4-5년이 지난 후 샤르트르 대성당 스테인드글라스에 나타난다. 고딕 성당 전문가들은 이것이 1215~1216년경 제작되었다고 추정한다. 그림9)에서 보듯 이 스테인드글라스에서 루이 왕자는 화려한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채 말을 탄 모습이다. 그가 든 청색 바탕에 금색 백합꽃이 점점이 박힌 방패와 깃발은 남아있는 사료 가운데 최초의 온전한 프랑스 왕실 문장이다.

위에 언급한 프랑스 백합 문장의 발전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137년 루이 7세의 인장에 나타나는 백합이 전문장이라면, 1179년 그의 아들 필리프 2세의 대관식 인장에 나오는 백합은 최초의 왕실 백합 문양이다. 1211년 루이 왕자의 인장에 등장하는 백합은 방패꼴 형태를 취한 최초의 문장이며, 1215년에서 1216년 사이 제작된 샤르트르 대성당 스테인드글라스에 나타나는 루이 8세의 방패 문장은 가장 온전한 형태를 갖춘 최초의 공식적인 프랑스 문장이다. 12세기 초부터 13세기 초까지 약 100년간 프랑스 왕실 백합 문장은 온전한 형태로 서서히 발전했음을 왕의 인장과 스테인드글라스가 증명한다.



(그림9) 샤르트르 대성당 스테인드글라스로  
나타난 루이 8세의 왕자 시절 모습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금색 백합꽃이 점점이 박힌 방패꼴 문장”의 바탕이 청색이라는 점이다. 서양 문장에 잘 쓰지 않는 식물 문장을 쓰는데다 문장에 드문 청색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프랑스 카페 왕조의 문장은 문장의 문화사에서 특이한 위치를 점유한다. 서양 전통에서 원래부터 색채는 형상에 비해 열등한 것이었다. 플라톤은 색채를 “장식적인 환상과 변덕의 총체”라 생각했고 이는 초대 교부들에게도 이어졌다.<sup>16)</sup> 회화에서도 “형상과 선(線)이 아폴로니우스의 절제와 남성성의 상징으로 찬미된 반면, 색채는 디오니소스적 방종과 여성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폄하되었다.<sup>17)</sup> 반면 염료가 풍부했던 오리엔트 지역에서 색채는 중시되었고, 특히 청색은 번영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색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유럽에서 청색은 그 색을 지칭하는 단어가 없었을 정도로 주목받지 못했다. 일찍이 켈트족들이 몸과 얼굴을 청색으로 칠하고 침략한 탓에 청색은 야만과 불운의 색으로 간주되고 중세 까지도 이 관념은 지속되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흰색, 검정색, 빨간색은 숭상”되어도 청색은 기피되었던 것이다.<sup>18)</sup>

그런데 이런 청색이 12세기 프랑스에서 고귀한 색으로 부상한다. 루이 6세와 루이 7세의 고문이자 성직자였던 쉬제(Suger de Saint-Denis, 1081~1151)

16) Robert Finlay, “Weaving the Rainbow: Visions of Color in World History”, *Journal of World History*, Vol. 18, No. 4, 2007, p. 400.

17) Leonard Shlain, *Art and Physics*, New York : Quill William Morrow, 2007, p. 171.

18) 카시아 세인트 클레어, 『컬러의 말』, 이용재 역, 월북, 2018, 183쪽.

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천상의 빛을 청색으로 새롭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쉬제는 1135~1144년경 자신이 수도원장으로 봉직하고 있던 생드니 수도원의 부속 교회를 허물고 재건하면서 모든 수단과 기술을 동원해 색채가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결심한다. 당시 동방 성지를 순례하고 돌아온 여행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려한 소피아 성당에 감명을 받았고 이에 견줄만한 교회를 짓고자 했다. 재건축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한 교회 운영서(*Liber de Rebus in Administratione Sua Gestis*)에서 쉬제는 화려한 색채를 사용한 이유를 이렇게 적는다.

“나는 하느님의 집의 아름다움에 기뻐했는데, 보석들의 여러 가지 색과 좋은 모양새는 나로 하여금 근심을 떨쳐 버리게 하고 나를 물질적 영역에서 비물질적 영역으로 데려가면서 신성한 덕의 다양성에 대해 생각하게 했다. …… 하느님의 은총으로 보다 낮은 세계에서 높은 세계로 옮겨 가는 것같이 여겨졌다.”<sup>19)</sup>

다채로운 색으로 장식된 교회는 비천한 물질적 세계에서 고귀하고 높은 비물질적 세계로 신도들을 옮겨가게 하기 때문에 색은 교회 건축의 중요 요소라고 본 것이다. ‘하느님은 빛’이라 여긴 쉬제에게 빛은 곧 청색이었다. “청색은 신성한 느낌을 자아내며 교회당 안으로 하느님의 빛이 가득히 들어오도록 해 준다.”고 생각했다.<sup>20)</sup> 쉬제는 생드니 수도원 부속 교회 곳곳을, 그중에서도 특히 스테인드 글라스를 청색으로 치장한다. 당시 가장 비싼 사파이어를 먼 곳에서 들여와 “신이 머무는, 근접할 수 없는 천상의 빛”을 구현했다.<sup>21)</sup> 12세기 쉬제의 청색은 13세기 샤르트르 대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더 한층 빛을 발했다. 성당의 오묘하고 깊은 파란색 유리는 ‘샤르트르 블루’라 불렸고, 남쪽 창 의 성모 마리아는 ‘파란 성모’(Vierge bleue)라 불릴 정도로 청색은 샤르트르 성당을 대표하는 색이 되었다. 또한 쉬제가

19) W. 타타르키비츠, 『미학사』 2, 손효주 역, 미술문화, 2006, 309~310쪽.

20) John Gage, *Couleur & Culture. Usages et significations de la couleur de l'Antiquité à l'abstraction*, Editions Thames & Hudson, Paris, 2008, pp. 69~78.

21) Philippe Verdier, “Réflexions sur l'esthétique de Suger”, *Mélanges C. R. Labande*, 1975, pp. 699~709.

“지상에 있는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집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선택한 청색은 곧이어 프랑스 왕실 문장의 청색”이 되었다.<sup>22)</sup> 프랑스 카페 왕조의 수호 여신인 성모 마리아의 꽃밭에도 청색이 등장한다. 루이 9세는 “자신의 직무를 완벽하고 위엄 있게 수행하면서 열렬히 숭배하는 성모 마리아에게 겸허와 비천함을 드러내기 위해” 청색 옷을 입었다.<sup>23)</sup>

하느님의 빛으로서 청색은 왕의 청색으로 정착되고 점차 다른 가문과 개인의 상징에도 영향을 주었다. 방패나 군대의 깃발뿐 아니라 여러 다른 매체와 의식에서 청색 사용이 활발해졌다. 축성식과 대관식, 축일이나 예식, 왕조의 의례, 왕이나 군주들의 입성식(入城式), 마상 시합과 기마 시합, 정장 의복 등에서 청색의 인기는 급등했고, 이는 유럽 다른 나라로 급속하게 전파되었다.<sup>24)</sup> 13세기 초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백합과 천상의 빛과 왕의 청색이 왕실 문장에서 결합되면서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독보적인 문장을 소유하게 된다. 먼저 백합과 청색의 만남은 프랑스 왕국이 천상의 왕국과 결속되어 있으며, 프랑스 왕은 천상과 지상의 매개자임을 천명했다. 그리고 청색의 인기가 유럽 다른 나라로 확산되면서 색채를 경시하던 서양의 오랜 전통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세속적 지위와 권리 확인과 더불어 종교적이고 신성한 의미까지 내포한 프랑스 왕실 문장은 색채에 대한 서구인의 고색창연한 낯은 관념까지 바꿔놓게 된 것이다.

#### IV. 백합 문장의 변화와 쇠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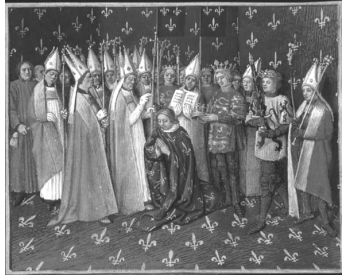
백합문장의 쇠퇴는 ‘점점이 박힌’ 백합이 세 송이 백합으로 변모하면서 서서히 시작되었다. 종종히 박힌 백합은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연상시켜서 백합의 신적 기원을 표상하는 것이었다. 중세 성상학(iconographie)에서도 “점점이 박힌” 장식은 대개 성스러운 것과 연관되었고, 이런 연유로 대관식에서 왕은 초승달이나 별이 박힌 망토를 걸쳤다.<sup>25)</sup> 『프랑스 대연대기』에 실

22) Michel Pastoureau, *Bleu, histoire d'une couleur*, Seuil, 2000, p. 56.

23) Jacques Le Goff, *Saint Louis*, Gallimard, 1996, pp. 136~139, pp. 628~631.

24) 미셸 파스투루, 『파랑의 역사』, 고봉만 역, 민음사, 2017, 99~100쪽.

린 필리프 2세의 대관식 삽화는 이런 효과를 증명한다.



(그림10) 필리프 2세의 대관식 삽화

백합이 점점이 박힌 청색 망토를 입고 대관식을 치르는 필리프 2세를 후대에 묘사한 그림(10)에서 프랑스 문장이 천상의 성스러움이라는 의식적 효과를 나타내는 데 손색없는 상징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1375년경부터 총총하게 박힌 백합 문장에서 세 송이 백합으로 왕실 문장이 변모하면서 이런 효과는 사라진다. 그림(11)과 같은 세 송이 백합 문장은 루이 8세 때부터 간간히 출현하기 시작해 루이 9세와 필리프 3세에 이르러 총총히 박힌 백합 문장을 완전히 대신하게 된다. 이를 실질적으로 승인한 왕은 샤를 5세(Charles le Sage, 1338~1380)였다. 그는 잉글랜드와 백년전쟁이 진행 중이던 1372년과 1378년 사이 프랑스 왕과 왕국에 필요한 것은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 같은 보살핌이 아니라 ‘동질적이고 하나의 실체로 된 아들과 아버지’라는 삼위일체의 남성적 관계라 보고 문장의 백합을 세 송이로 줄였다.

왕실 문장의 변화는 성모 마리아 숭배와 그에 관련된 준거들이 프랑스에서 서서히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징후였다. 유럽 다른 나라와 달리 식물 상징을 문장으로 쓰고 “디오니소스적 방종과 여성적인 것”이란 혐의를 받고 잘 쓰이지 않던 푸른 색상을 문장 바탕색으로 채택했던 프랑스 문화가 점점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백합 문장이 표방했던 이상과 가치가 재평가된 곳은 영국이었다. 헨리 6세(Henry VI,

25) Anne Lombard-Jourdan, *Fleur de lis et oriflamme*, Presses du CNRS, 2015, p. 30~34.

1422~1461)는 이튼 칼리지와 캠브리지 킹스 칼리지를 설립하고 학교 문장을 하사하면서 백합을 첨가했다. 이후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는 『루크리스의 능욕』(*The Rape of Lucrece*)에서 루크리스의 희고도 붉은 아름다운 얼굴은 “백합과 장미의 조용한 전쟁”(71)이라고 표현하여 대표적 식물 문장 상징인 백합과 장미를 통해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새롭게 부상하는 여성적 힘을 강조했다. 르네상스 영국이 튜더 장미(Tudor Rose)를 새로운 국가 상징으로 삼고 근대국가로 성장할 때 프랑스의 백합 문장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후 영국이 문장 규칙을 정교하게 다듬고 문장을 착용할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한 것과 달리 프랑스에서 문장은 세금 징수의 수단으로 변질된다. 루이 14세(Le Roi Soleil, 1638~1715)는 1696년 국내에 사용되는 모든 문장의 목록을 작성하라는 칙령을 내렸다. 올바른 문장 사용 규범을 제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빈 왕실의 금고를 보충하기 위함이었다. 문장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기관이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했고, 문장을 바꿔 재등록할 때도 새로 세금을 붙였다. 벌금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자 문장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모든 개인과 조직의 명부를 기록한 『문장 총람(*Armorial Général*)』을 매년 발행하도록 해 세금 징수에 이용했다. 루이 14세의 문장 정책은 시민들이 문장을 귀족의 전유물이자 폭압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프랑스 혁명과 함께 제헌국민의회가 문장을 봉건의 잔재로 규정하고 폐지할 것을 주장한 것은 어쩌면 충분히 예견된,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혁명주의자들은 개인 문장을 불살라 버리고 도자기나 은그릇에 새겨진 문장은 긁어내도록 했다. 문에 붙은 문장은 떼어냈고 책에 있는 것이라면 그 페이지를 찢어내야 했다. 1792년 9월 21일 혁명 정부가 구체제의 프랑스 왕권을 나타내는 상징이나 표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왕관과 백합은 파괴의 대상이 되었다. 침략 일부가 루이 9세의 머리글자인 “L”과 백합으로 장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시기에 생트 샤펬(Sainte Chapelle) 성당의 탑도 훼손되었다. 당시 광범위하게 진행된 ‘문장 테러(terreur héraldique)’에 반발한 왕당파는 잠시 백합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쓰기도 했다. 혁명으로 탄생한 프랑스 제1공화국이 고대부터 프랑스를 상징하던 ‘달’을 새로운 국가 표상

으로 삼으면서 프랑스 왕실의 백합은 그 의미를 다하게 된다.<sup>26)</sup>19세기에 이르르면 문장뿐 아니라 백합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반시대적 퇴행으로 여겨질 정도로 백합은 봉건의 잔재와 억압의 상징으로 퇴보한다.



(그림11) 샤를 5세 집권 후반기에 백합 세 송이로 단순화된 왕실 문장



(그림12) 1844년 재등장한 파리 도시 문장

프랑스 혁명의 열기가 가라앉으면서 백합 문장의 의미를 재평가하는 프랑스 내부의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들은 백합을 잘라냄으로써 왕정을 잘라내기도 하였지만 현대를 꽃피워낸 중세 천년의 시간과 그 시간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잘려나갔다고 믿었다. 백합 문장 속에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프랑스가 다듬고 아로새긴 이상 또한 스며있다고 본 것이다. 1844년 제정된 그림12)의 파리 도시 문장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프랑스 혁명 때 지워낸 백합을 다시 살려냈다. 한 척의 배 위에 프랑스 왕실 백합 문장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Fluctuat nec mergitur”, 즉 “배는 파도에 흔들려도 파도에 가라앉지는 않는다.”는 모토를 문장 하단에 새겨 넣었다. 프랑스는 배가 파도라는 현실적 동력이자 어려움을 헤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파도에 흔들려도 파도에 가라앉지 않는 건강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뿌리의 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파리 도시 문장의

26) 김경화 · 고봉만 외, 『문장과 함께 하는 유럽사 산책』, 글항아리, 2019, 89~94쪽.

암시는 문장이 현대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기도 하다.

## V. 결론

프랑스 왕실의 백합 문장은 고대 백합 문양의 역사와 무관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직접적 기원은 기원전 1세기 경 갈리아 부족의 동전에 두고 있다. 이후 프랑크 왕국의 왕관과 왕홀에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왕권과 종교적 의미를 내포하면서 왕실 상징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10세기에 시작된 마리아 공경은 프랑스의 백합이 성모 마리아와 연관을 맺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다.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는 성당 건축을 위해 발행된 동전과 인장은 백합과 성모가 함께 나타나는 장소가 된다. 또한 대성당 파사드와 스테인드 글라스에 등장하는 성모는 종래에는 볼 수 없었던 위엄 있는 여왕의 모습으로, 12세기 프랑스에서 예수의 부속물처럼 여겨지던 마리아를 예수에 버금가는 존재로 부상한다.

12세기 유럽 전역에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대신하는 수단으로 문장이 퍼져나갈 때 프랑스는 자연스럽게 백합을 왕실 문장으로 채택한다. 전쟁에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시각적 지표에서 출발한 문장은 동물 문양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특이하게 식물 상징을 쓴 프랑스에서는 역사적 신학적 의미 부여가 뒤따랐다. 13세기를 전후해 전파된 클로비스 왕의 전설과 신학자 쉬제의 성모 마리아 청색은 모두 백합 문장의 상징성을 강화하는 것들이었다. 전설의 내용은 프랑크의 클로비스 왕이 6세기에 기독교로 개종할 때 이미 프랑스는 하늘로부터 백합 문장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쉬제가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는 하느님의 빛을 청색으로 해석하면서 마리아의 청색은 주요한 색으로 채택되고 이후 왕의 색으로 정착된다.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백합과 왕의 청색의 결합으로 프랑스 왕실 문장은 문장의 역사에서 개성적이고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프랑스 왕은 천상과 지상의 매개자임을 천명하여 세속적 지위뿐 아니라 종교적 의미까지 획득하게 된 것이다. 초기에는 왕과 귀족의 문장이 세속적인 권리 확인에

치중한다고 비판했던 교회가 입장을 바꿔 점차 종교 문장을 구상하게 된 데는 프랑스 왕실의 백합 문장의 역할도 작용했으리라 추측된다. 또한 백합 문장의 청색이 점차 다른 가문과 개인 문장에도 채택되면서 유럽에서 하찮은 색으로 취급받던 청색이 갑작스럽게 인기를 끌게 된 것은 프랑스 문장의 역할이 컸다고 보아야 한다.

중세 프랑스 왕실 백합 문장은 대외적으로 유럽을 하나의 기독교 국가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끼쳤지만 국내에서는 분열의 상징으로 변질된다. 앙시앵 레짐과 프랑스 혁명으로 말미암아 백합 문장은 봉건의 잔재로 규정되고 파괴되기 시작한다. 문장은 귀족의 사치품이요 청산해야 할 과거로 인식되면서 프랑스의 ‘백합’은 시 ‘닭’에게 국가 상징의 자리를 내어주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이제 프랑스에서 백합을 논하는 것은 봉건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되면서 백합 문장에 대한 연구도 오랫동안 진척되지 못했다.

왕실 문장으로서 백합이 그 기능과 소임을 다한 것은 시대적 요구로 수용되어야 하나, 백합에 대한 학술적 가치마저 경시되고 부인되는 현실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최근 프랑스 학계를 움직이고 있다. 이 중심에 파스투로가 있다. 그는 유독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문장 연구가 평가 절하되면서 많은 학문적 손실이 뒤따랐다고 지적한다. 결혼과 사망, 상속과 보상 등 개인과 가문의 재산과 지위 변동 등 상세한 정보를 담은 문장 연구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면 역사 연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장 연구가 축소되면 새롭게 발굴된 역사적 유물이나 문헌의 제작 연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확실한 경로 하나를 잃게 된다. 역사적 사료 분석에 있어 문장 데이터 축적은 필수적인 사항인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대의 문화적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시각 자료의 상실은 중세 역사와 문화를 현대와 같은 공간에 놓고 음미할 수 있는 즐거움은 물론이요 현대 문화를 점검하고 미래 문화를 기획하는 기본 틀을 잃는다는 점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문장이 사라진 오늘날에도 문장 연구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현재를 지탱하는 뿌리와 미래로 나아가는 자양분이 모두 문장이라는 토양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성에 힘입어 현재 프랑스에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문장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문장의 문화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는 백합의 경우 백합 문장 자체가 프랑스 역사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다른 유럽 국가에 끼친 영향 관계는 물론 현대 디자인에 응용된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다. 문장은 중세 천년을 지배하고 사라지고 없지만 현재에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 문장과 다른 전통 속에 있는 우리가 문장 연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 참고문헌

- 김경화·고봉만 외, 『문장과 함께 하는 유럽사 산책』, 글항아리, 2019.
- 김슨 클레어, 『상징, 알면 보인다』, 정아름 역, 비즈앤비즈, 2010.
- 배철현, 『인간의 위대한 질문』, 21세기북스, 2015.
- 세인트 클레어 카시아 저, 『컬러의 말』, 이용재 역, 월북, 2018.
- 임영방, 『중세 미술과 도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 타타르키비츠 W. 『미학사』 2, 손효주 역, 미술문화, 2006.
- 파스투로 미셸, 『파랑의 역사』, 고봉만 역, 민음사, 2017.
- \_\_\_\_\_, 『돼지에게 살해된 왕』, 주나미 역, 오롯, 2018.
- 피어시, 조셉, 『상징: 우리가 사는 사회의 이해』, 임상훈 역, 새터, 2014.
- Finlay, Robert, “Weaving the Rainbow : Visions of Color in World History”,  
*Journal of World History*, 2007. Vol. 18, No. 4, 2007, pp. 383-431.
- Haran, Alexandre-Y., *Le lys et le globe : messianisme, dynastique et rêve impérial en France aux XVIe et XVIIe siècles*, Champ Vallon Editions, 2000.
- Le Goff, Jacques, *Saint Louis*, Gallimard, 1996, pp. 136-139 et 628-631.
- Lombard-Jourdan, Anne, *Fleur de lis et oriflamme*, Presses du CNRS, 2015.
- Louis, Grodecki, “Les vitraux exécutés par ordre de Suger pour l'abbatiale de Saint-Denis entre 1140 et 1146 environ”, *Bulletin de la Société nationale des Antiquaires de France*, 1952-1953.
- \_\_\_\_\_, *Etudes sur les vitraux de Suger à Saint-Denis (XIIe siècle)*, Presses de l'Université de Paris-Sorbonne, 1995.
- Magnou-Nortier, Élisabeth, “Capitulaire De Villis et curtis imperialibus (vers 810-813) : texte, traduction et commentaire”, *Revue historique*, no 607, juillet-septembre 1998.
- Marcotte, Stéphane, “La Cité de Dieu de saint Augustin traduite par Raoul de Presles (1371-1375)”, *Perspectives médiévales* 36, 2015.
- Moulinier, Laurence, “La botanique d'Hildegarde de Bingen”, *Médiévales*,

Année 1989.

Palma, Salvatore Di, *L'Histoire des marques depuis l'antiquité jusqu'au moyen âge*, 2014.

Pastoureau, Michel, *Traité d'héraldique*, Paris, Picard, 2008.

\_\_\_\_\_, *Bleu, histoire d'une couleur*, Seuil, 2000.

\_\_\_\_\_, *Le roi tué par un cochon : une mort infâme aux origines des emblèmes de la France*, Seuil, 2015.

Piaget, Arthur, “Un poème inédit de Guillaume de Digulleville : Le Roman de la Fleur de lis”, *Romania*, 1936, pp. 317-358.

Pinoteau, Hervé, “La création des armes de France au XIIe siècle”, *Bulletin de la Société nationale des Antiquaires de France*, 1980-1981.

Roy, Emile, “Philippe le Bel et la légende des trois fleurs de lis”, *Mélanges de Philologie et d'Histoire Antoine Thomas*, Slatkine Reprints, 1973, pp. 383-388.

Shlain, Leonard, *Art and Physics*, New York: Quill William Morrow, 2007.

Theis, Laurent, *Clovis, de l'histoire au mythe*, Bruxelles, Éditions Complexe, 1996.

Verdier, Philippe, “Réflexions sur l'esthétique de Suger”, *Mélanges C. R. Labande*, 1975, pp. 699-709.

#### • 그림 출처

그림1) <http://www.hubert-herald.nl/FranCrowns.htm>

그림2) [https://en.wikipedia.org/wiki/Edgar\\_the\\_Peaceful](https://en.wikipedia.org/wiki/Edgar_the_Peaceful)

그림3) <https://www.notredamedeparis.fr/la-cathedrale/architecture/le-portail-sainte-anne>

그림4) [https://fr.wikipedia.org/wiki/Notre-Dame\\_de\\_la\\_Belle\\_Verriere](https://fr.wikipedia.org/wiki/Notre-Dame_de_la_Belle_Verriere)

그림5) <https://gallica.bnf.fr/ark:/12148/btv1b84472995/f32.item>

그림6) <https://www.agefotostock.com/age/en/Stock-Images/Rights-Managed/HEZ-2684473>

그림7) [https://en.wikipedia.org/wiki/Philip\\_II\\_of\\_France](https://en.wikipedia.org/wiki/Philip_II_of_France)

그림8) <http://www.hubert-herald.nl/FranPortraits2.htm>

그림9) <http://www.hubert-herald.nl/FranPortraits2.htm>

그림1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ouronnement\\_de\\_Philippe\\_Auguste.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ouronnement_de_Philippe_Auguste.jpg)

그림11)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Arms\\_of\\_the\\_Kingdom\\_of\\_France\\_\(Moderne\).sv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Arms_of_the_Kingdom_of_France_(Moderne).svg)

그림12) [https://en.wikipedia.org/wiki/Coat\\_of\\_arms\\_of\\_Paris](https://en.wikipedia.org/wiki/Coat_of_arms_of_Paris)

❖ ABSTRACT

## A Study of the History and the Meaning of the Fleur-de-lis in French Royal Heraldry

Ko, Bong Mann

Dept. of French Language and Culture, Chungbuk Nat'l University

First adopted as the royal heraldry of France in the middle of the 12th century, the fleur de lis has for a long time become not only identified with the French Royal House, but also with France itself. Nevertheless, the documents and studies on it were scarce and poor. This is because since the French Revolution, the symbol has been a politically sensitive subject, the fleur de lis being so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monarchy that revolutionaries erased and destroyed it on many time-honoured works of architecture and art.

This paper aims to illuminate the meanings of the fleur de lis for French royal heraldry, which has been unnoticed by researchers, because it could not be fairly interpreted, and to restore its academic value. According to Michel Pastoureau, a French professor of medieval history, with heraldry serving as cultural code for interpreting contemporary society, it is very significant to examine the meanings of the fleur de lis as French heraldry.

I demonstrate when the fleur de lis began exactly as an official emblem in France, and how its shapes and meanings have changed from the historical context, based on the king's seals, contemporary coins, and history books copied in medieval times. Then I examine how the honor of Mary in the 12<sup>th</sup> century changed Mary's status in Western Christianity, and how it affected the color of French royal heraldry as represented in façades and stained glass windows in Gothic cathedrals. After track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decline of heraldry in France starting with Ancien Régime, I investigate why the

researches on heraldry are still important even today, and which direction they are heading in the future.

Key Words : French Royal Heraldry, Fleur-de-lis, Veneration of Mary, Coins and Seals, Gothic cathedrals, The Blue, Stained glass windows

■ 논문접수일 : 2019. 11. 10

■ 심사완료일 : 2019. 12. 01

■ 게재확정일 : 2019. 12. 03